

“오른쪽 차단하고 강하게 맞아쳐라”

홍명보호 19일 오전 10시 멕시코와 2차전... 수비 조직력 강화 훈련 초점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과 맞붙을 멕시코는 지난 12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개막전에서 2-0으로 이겼으나 객관적 전력 차를 고려하면 경기력에선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전반 이른 시간 선제 득점한 이후 상대 선수의 퇴장에 따른 수적 우위에도 쉽게 달아나지 못했고, 경기 막바지엔 주축 센터백인 세사르 몬테스의 퇴장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열정적인 멕시코 홈 팬들의 야유가 나오기도 할 정도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벌어질 멕시코와의 조별리

그 A조 2차전을 앞두고 그 경기로 멕시코를 판단해선 안 된다며 홍명보호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월드컵 중계를 맡은 박찬하 KBS 해설위원은 15일 연합뉴스에 “1차전의 멕시코는 진짜 멕시코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멕시코는 남아공을 상대로 굳이 힘을 빼려고 하지 않은 채로 많은 시간 경기를 펼쳤다는 생각이 든다. 이기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토너먼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 9월 우리와 평가전(2-2 무)을 할 때와도 멕시코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 그때를 생각해

가, 멕시코의 남아공전을 분석해서 우리가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처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금물이다. A조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홍명보호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는 로베르토 알바라도와 브라이언 구티에레스가 있는 오른쪽 공격을 꼽았다.

그는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을 제외하면 우리가 그쪽에 수비적인 리스크를 짊어졌던 시험 무대가 별로 없었다”면서 “왼쪽 수비에서 흔들리면 우리 대표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고, 수비 조직력을 잘 가져간다면 상대 오른쪽을 봉쇄하

면서 비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멕시코에 머물며 멕시코 대표팀의 월드컵 대비 평가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김학범 전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 또한 남아공전으로 멕시코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가 선수 소집도 일찍 하는 등 이번 대회를 정말 잘 준비했다”고 전한 김 감독은 “멕시코시티에 있다가 과달라하라로 가니 숨쉬기가 편하더라. 멕시코가 멕시코시티에서 풀코 훈련하다가 해발이 더 낮은 과달라하라로 가는 만큼 환경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제주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반”

학교 학급 대항 리그 출범 각 학교별 1개 학급만 출전 선수 등록된 엘리트는 제외

제주지역 학교 스포츠클럽 학급별 대항전이 출범한다. >> 사진 제주SK FC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2026 제주 SKY League(SK Youth Champions League)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런 대회는 엘리트 선수 위주가 아닌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급별 리그 형태(학급 대항전)를 지향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제주SK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주최·주관한다.

참가대상은 교내리그 대회를 통해 선정된 각 학교 1개 학급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대한축구협회에 전문학생선수(1종)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이어야 하고, 혼성 학급인 경우 남자부로 편성된다.

교내리그는 학교 자체적으로 경기 방법을 정해 5월부터 진행됐으며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예선은 전·후반 25분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제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4강 및 결승전은 전·후반 25분, 연장 전·후반 5분 토너먼트 방식으로 제주SK FC 클럽하우스에서 열린다.

대회 발대식은 7월 12일 대전하나 시티즌과의 홈 경기 당일 진행될 예정이다며 우승팀엔 트로피 및 부상(메달)이 수여된다. 또 2위와 3위는 부상(메달)이 수여되며 개인상은 MVP, 득점상, 감독상으로 구분해 상품 및 상장이 수여된다.

제주SK 관계자는 “이번 2026 제주 SKY League는 엘리트 중심이 아닌, 모든 학생이 함께 뛰고 즐기는 축구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며 “학급 단위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와 2차전을 앞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5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훈련장에서 러닝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죽음의조’에서 네덜란드와 2-2 무승부

세계 정상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해 온 일본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끈질긴 승부 끝에 승점 1을 따내는 저력을 보여줬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1

차전에서 후반 43분 가마다 다이치(크리스털 팰리스)의 동점 골 덕분에 2-2로 비겼다.

후반 들어 네덜란드의 피르힐 판 데이크(리버풀)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나카무라게이토(스트다 드 랑스)의 동점골로 균형을 되찾은 일본은 크리스시오 서머빌(웨스트 햄 유나이티드)에게 실점해 다시 리드를 빼앗겼으나 정규시간 종료

2분을 남기고 가마다의 행운의 득점으로 패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축구연맹 소속 국가는 이날까지 첫 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챙겼다.

앞서 경기한 한국과 호주는 각각 체코와 튀르키예를 꺾었고, 카타르는 스위스와 비겼다.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가 속한 F조는 이번 대회 ‘죽음의

조’로 평가받는다. 특히 네덜란드-일본전은 대회 전체 조별리그 경기 중 몇 안 되는 빅매치로 꼽힌다.

이날 경기 전까지 FIFA 랭킹은 네덜란드가 8위, 일본이 18위다.

일본이 역대 월드컵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네 차례 달성한 16강(2002, 2010, 2018, 2022년)이다.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독일, 스페인을 각각 2-1로 눌러 16강에 올랐으나 크로아티아와의 승부차기에서 져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연합뉴스

서귀포시청 김일현·이수정, 홍콩오픈육상 은·동메달

서귀포시청 소속 김일현(사진)과 이수정이 2026 홍콩오픈육상경기대회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김일현과 이수정은 한국실업육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로 선발하면서 지난 13-14일 홍콩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김일현은 남자일반부 원반던지기에서 51.50m의 기록으로 은메달, 여자일반부 포환던지기에서

이수정은 13.57m로 3위에 올랐다. 김일현과 이수정의 기록은 국내 대회 우승 기록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서귀포시청에 입단한 김일현은 지난달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원반던지기에서 52.08m로 금메달을 따냈다. 이수정 역시 지난달 열린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부 포환던지기에서 15m22의 기록으로 2위에 오르며 은메달을 따낸 바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재)	6: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H조 사우디:우루과이 9: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G조 이란:뉴질랜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최고! 호기심 딱지 11:15 뽀빠이 좋아! 스페인 11:45 주니토 이야기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방방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하든카드(재)	8:20 지구 영웅 반계만 9:20 자이언트 펭TV 9:40 서정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2:10 최후의 인류 13:25 EBS 평생학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6:20 당동당 당동당 18:20 고함민국 19:45 극한직업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14:00 KBS 뉴스 14:10 생로병사의 비밀(재) 15:10 일어서 세계속으로(재) 16:00 시사간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20 인강극장 스페셜 13:40 굿모닝 대한민국(재) 15:00 KBS 월드컵 뉴스 15:15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하이라이트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 백세 로고인(재) 13:25 찾아가는 푸라기교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엄마를 부탁해(재)	12:00 SBS 12 뉴스 12:05 소리원정대 13:00 일하는 몸(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고함! 보인다 16:00 화합기행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건강한가요	9:00 KCTV 9시 뉴스 9:30 소리원정대 10:00 삼촌 맹심합서에 11:3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2:30 어촌별곡 13:00 KCTV 13시 뉴스 13:20 지금 이순간 15:20 네트워킹 전국발굴 16:00 공원에 반하다 17:20 도래해 18:00 리얼귀농스토리 나는 농부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10 굿 라이브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시사기획 창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영상앨범 산(재)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북중미 월드컵 NOW 22:00 불림병사의 비밀 23:15 그고 콘서트(재)	18:05 다구 M 19:05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오심프로(재) 22:20 PD수첩 23:20 100분토론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원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박문로: 스님과 순남 22:4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만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p>#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p>				

오늘의 운세 16일

김중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동 교수(010-5233-6136)

36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귀가는 늦지마라. **48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질투할 일이 생긴다. 친구간에 경쟁은 금물. **60년** 직장인은 청정인 있고 실업자는 회소식이 있다. **72년** 여성에게 무언가 배움을 의식하게 된다. **84년** 목표를 이루려 노력한다. 꾸준히 실천하면 이익이 있다.

42년 주변 환경 탓을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꾸준히 하라. **54년**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긴다. 문서나 매매 등 늦추지 마라. **66년** 자랑스러운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조심. **78년** 외출 및 활동력이 많아진다. 말조심하라. 언행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 **90년** 즐겁고 행복한 미소 짓기.

37년 재래시장 중개인 또는 운수업은 분주. **49년** 마음이 안정을 찾으니 본연에 충실하게 상체. **61년**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다 보고 있는 것 같다. 주어진 일에 만 집중하라. **73년** 깊은 생각에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신속하게 움직여라. **85년** 잠이 많거나 야속에 자질이 생겨 다투게 된다.

43년 상대방을 너무 이해하다가 역효과가 오니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져 흥이 된다. **55년** 능력이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67년** 시험 또는 자격이 필요시 인터넷, 신문 활용이 유리하다. 정보를 활용하라. **79년** 아르바이트나 단체행사에 나가기도 한다. **91년**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욕망이 강하다.

38년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강하다. 형제간에 대화 필요하다. **50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62년** 낯선 이익이 저자 저려낸 생기가 넘친다. **74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이 있다. **86년** 채우고 싶어하는 갈증과 부추함에 긴장이 온다. 전문자격 준비를 하라.

44년 시댁 또는 처가에 갈 일이 생기고 금전이 필요하다. **56년** 외출 시 부부 간 다툼은 늦게 도착한다. **68년** 직장이나 사업장 내에서 먼저 배려함이 필요하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 **80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실수가 두렵다. 이성관계 불화. **92년** 작은 이익을 보려다 큰일에 손해를 보니 신중함이 옳다.

39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생기기도. **51년** 자기의 역사는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63년** 새로운 각오와 출발이 필요하고 의욕을 높여라. **75년** 재물이 들어와도 지출될 곳이 많다. **87년** 새로운 각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 직업 변동이나 취업으로 고민.

45년 동료 간 협력·협조할 일이 생기고 기쁨이 두배가 되는 즐거움이 있다. **57년** 바쁜 소식을 접하거나 초대 받을 일이 생긴다. **69년** 부부간 사소한 논쟁이 다툼으로 변질된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삼가할 것. **81년** 자신감으로 승부할 때. 친구 또는 이성간 만남이 있다. **93년** 남에게 도움을 줄 일이 생긴다.

40년 휴식이 필요해도 안정을 못하고 몸만 분주하다. **52년** 과음, 과식은 건강에 이상신호. 자제하라. 좋은 일속에 흥이 오는 격. **64년** 실천하려 하나 몸이 따르지 않고 마음만 급하다. **76년** 문서, 매매는 불리하니 계약을 미루거나 훗날을 기약하라. **88년** 모임이 있으며 할 일이 생긴다. 이성관계가 깊다.

46년 외출 할 일이 만들어진다. 재물이 온다. **58년** 허락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나니 인내하라. 준비된 자는 웃는다. **70년** 하는 일에 성과가 있다. 재물이 증가. 대인관계 풀려나. **82년** 남성은 이성교제. 여성은 외모에 치중한다. **94년** 친구, 형제의 소식이 온다. 딱거리가 생긴다.

41년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고 의욕도 강해진다. **53년** 모임이 있다면 오늘 만남은 자중하라. 갑자기 다툼이 올 수 있으니 조심. **65년** 앞뒤가 막혀 있으니 결정에 신중함이 가득하다. **77년** 이성교제 또는 만남 약속이 생기며 의외의 장소에서 행운이 온다. **89년** 이성 또는 직업으로 고민하고 변동이 따른다.

47년 상대를 억압보다는 세심한 배려를 하라. **59년** 노력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나니 인내하라. 준비된 자는 웃는다. **71년** 하는 일에 성과가 있다. 재물이 증가. 대인관계 풀려나. **83년** 남성은 이성교제. 여성은 외모에 치중한다. **95년** 친구, 형제의 소식이 온다. 딱거리가 생긴다.